

2024년 7월 15일



KIWOOM 이슈분석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주식전략 김지현 jeehyun@kiwoom.com / | 채권전략 안예하 yhahn@kiwoom.com

| 경제/FX 김유미 helloym@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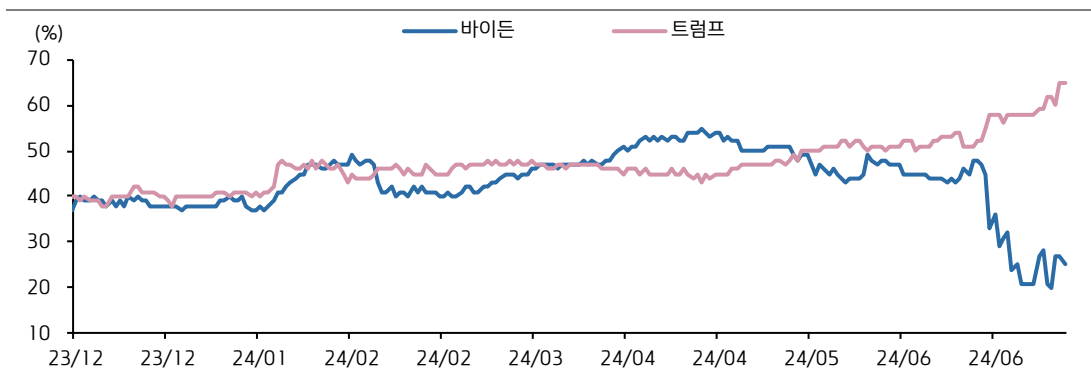
키움증권

트럼프 유세장 피격과 금융시장 영향

Check Point

- **트럼프 대통령 후보 피격 사건 발생:**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3 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피격. 총격으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귀에 총상을 당하였으나 치명상은 피한 상황. 피격 사건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의 결집이 강화되며 금융시장에서는 금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
- **주식:** 1 주일 이내 단기적인 영향으로는 테슬라 밸류체인, 제약업종 주가 상승 vs 플랫폼, 게임 등 성장주 주가 변동성 확대가 예상.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당선 리스크에 따른 증시 노이즈는 정상화되고 실적 시즌을 지나며 AI,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도 업종의 상승 재개 및 코스피 3,000 선 도달 전망 유지.
- **채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은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높이며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단, 이는 금리의 방향성 결정 요인은 아닐 것. 3분기 중 물가, 고용시장 등의 지표 둔화를 확인하며 미 연준의 9 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채 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3 분기 정치 이벤트 속 트럼프 우세 현상은 금리 하락폭을 제약시키는 요인일 것으로 전망. 미국채 10년물 금리, 3분기 중 4.0~4.3% 레벨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
- **환율:** 미 공화당 전당대회와 함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미 달러화의 상승 압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하지만 미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3 분기 중에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한 만큼 관련 요인이 상충되며 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적. 3분기에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미 달러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 미 달러의 완만한 하락은 가능할 전망. 미 대선 이슈의 달러 영향은 4 분기 들어 정치·경제 불확실성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높이면서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트럼프 vs 바이든 지지율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1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계신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트럼프 유세장 피격과 주식시장 영향

Market/Strategist 김지현
jeehyun@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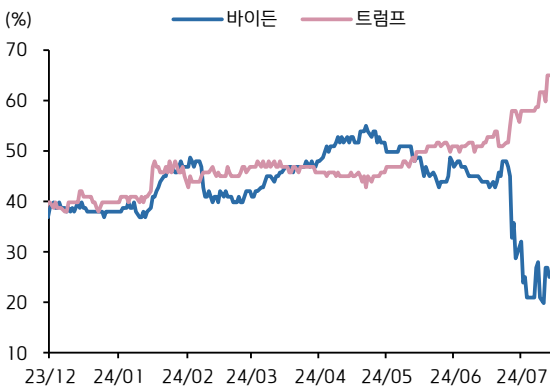
트럼프 유세장 피격 사건 발생 개요 및 대선 영향

한국시간 7월 14일 오전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오른쪽 귀 뒷부분에 경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후 4시간 만에 퇴원, 15~18일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예정대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사건 직후 공화당 지지층 및 중도층의 결집, 반트럼프 여론 희석, 민주당 내 바이든 사퇴 여론 확산 등의 여파가 예측되며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12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3선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하고도 90분간 연설을 진행했던 사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도중 있었던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지지율이 급등했던 사례에 트럼프를 대입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베팅사이트 Polymarket에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60%에서 70%까지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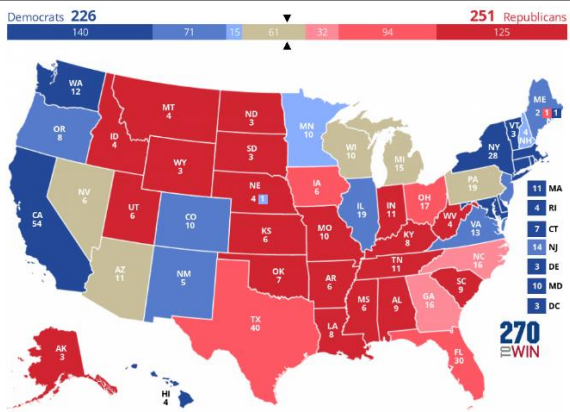
또한 펜실베이니아 주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역구였으나 2016년도 대선 당시 힐러리가 아닌 트럼프가 승리하며 경합주로 떠오른 중요 지역구로써 향후 트럼프 지지율 상승하며 바이든과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vs 바이든 지지율 추이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별 선거인단 수 및 대선 결과 예측
(민주당 226 vs 공화당 251)



출처: 240 to Win,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현지시간 7월 13일 기준

트럼프 공약 재점검 및 증시 영향

결론적으로 1주일 이내 단기적인 영향으로는 테슬라 밸류체인, 제약업종 주가 상승 vs 플랫폼, 게임 등 성장주 주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당선 리스크에 따른 증시 노이즈는 정상화되고 실적 시즌을 지나며 AI,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도 업종의 상승 재개 및 코스피 3,000 선 도달 전망을 유지한다.

과거 패턴상 역대 대통령 암살이나 피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 급락, 금, 유가 급등 등 자산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피격사건 발생 당일인 1981년 3월 30일 S&P500은 -0.3% 하락 마감했으나 다음날인 3월 31일 1%이상 강세, 10년물 금리는 9bp 하락하는 등 안정을 되찾았다.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암살 사건 당일에도 지수는 -2.8% 급락했으나 바로 반등에 성공했다.

금번에도 아시아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위험선호심리 위축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트럼프 당선 유력시될수록 증시는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증시에 우호적이라는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직 대선까지 약 4개월 남은 만큼, 트럼프 당선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은 15일 월요일부터 트럼프 트레이드를 강하게 반영하려는 경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첫 대선토론 직후인 6월말 ~ 7월 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상승하며 법인세율 및 소득세 인하, 보편적 관세 부과, 중국 최혜국 대우 박탈 및 60% 관세 부과 등 재정지출 확대 우려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대까지 급등했다. 이번주에도 4.4%대를 상단으로 금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하여 국내외 성장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소지가 존재한다.

업종 단에서 친환경 규제 완화, 화력 및 원전 강화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원전 섹터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차전지는 IRA 축소 또는 폐기 우려에 직관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경제 참모로 거론되고 있고 금번 피격 사건 이후 공개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포함 국내 관련 테슬라 밸류체인 이차전지주들은 단기 강세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은 트럼프가 과거 의약품 규제 완화 및 수입 확대를 통해 시장경쟁과 약가 인하를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대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친환경 정책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국방, 헬스케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부문 예산은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 약세"라는 부정적인 충격을 상쇄하며 우호적인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금주에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단기적으로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 “기존 주도 벤치마크 지수 (-) 소외 지수”, “주도 업종 (-) 소외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 관련 노이즈가 소강상태에 돌입한 이후 본격적인 실적시즌으로 초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도주인 AI,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실적주들을 비롯하여 특히 22일 이후 미국 빅테크 실적,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기존의 시장 색깔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에 충격을 준 이벤트와 당시 하락률

시장에 충격을 준 이벤트	날짜	S&P500		기간(일)	
		당일	하락률	저점도달	회복
무인기 폭격으로 이란 장군 사망	2020-01-03	-0.70%	0.00%	1	6
사우디 아람코 드론 폭격	2019-09-14	-0.30%	-4.00%	19	41
북한 미사일 발사	2017-07-28	-0.10%	-1.50%	14	36
시리아 폭격	2017-04-07	-0.10%	-1.20%	7	18
보스톤 마라톤 테러	2013-04-15	-2.30%	-3.00%	4	15
런던 지하철 테러	2005-07-05	0.90%	0.00%	1	4
마드리드 폭탄 테러	2004-03-11	-1.50%	-2.90%	14	20
9.11 테러	2001-09-11	-4.90%	-11.60%	11	3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1990-08-02	-1.10%	-16.90%	71	189
레이건 총격	1981-03-30	-0.30%	-0.30%	1	2
옴 키푸르 전쟁	1973-10-06	0.30%	-0.60%	5	6
뮌헨 올림픽 참극	1972-09-05	-0.30%	-4.30%	42	57
테트 공세	1968-01-30	-0.50%	-6.00%	36	65
6일 전쟁	1967-06-05	-1.50%	-1.50%	1	2
통킹 만 사건	1964-08-02	-0.20%	-2.20%	25	41
케네디 암살	1963-11-22	-2.80%	-2.80%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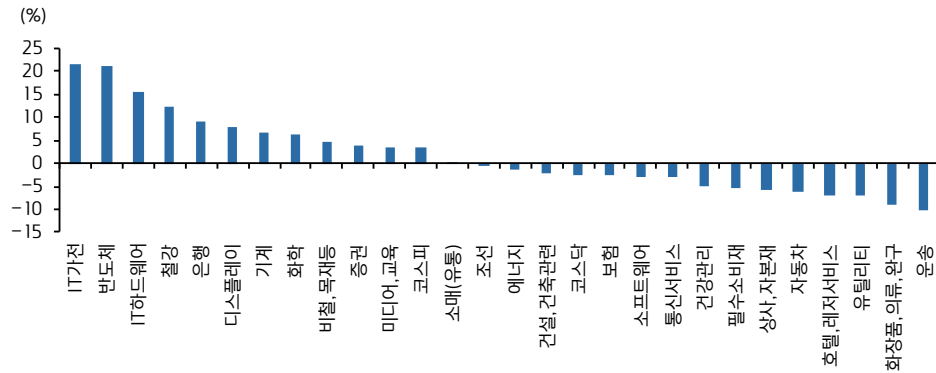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 트럼프 주요 공약

항목	공약	내용
외교/무역	관세 부과	- 보편적 기본관세, 상호무역법 도입
	무역장벽 강화	- 국경세 조정, WTO 개혁 및 회원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제한 등을 통한 불공정 무역협정 개정
	대중 정책	-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 중국산 상품에 대한 최소관세 면제(\$800) 중단 및 60% 이상 추가관세 부과 - 중국산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필수품 수입(우회수입포함)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 -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규제 및 모든 중국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연방계약 금지
경제	규제완화	- 401K(확정기여형 기업퇴직연금) 투자의 ESG 규제 요건 폐지할 것, 기업평균 연비 규제(CAFE) 종료 - 캐나다-멕시코에 USMCA 자동차부품 관련 조항 준수 요구 - 특별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불필요한 연방 자동차 규제 파악·철폐
	세금인하	- 법인세율 현행 21% → 15% 인하, 상속세 비과세 강화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7% 유지 및 연장(2025년 종료 예정)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규제 완화	- 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예산 삭감,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약 탈퇴
	화석 연료 및 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	- 석유, 가스, 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 및 가속화, 화석 연료 발전소 건설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 원자력규제 위원회 현대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가동 지속, 소형모듈원자로 투자 등 원자력 에너지 생산지원
인프라	신도시 10곳 건설	- 연방정부 빈 부지에 자유도시(Freedom City) 건설, 주택 소유 기회 제공, 항공모빌리티 혁명
	신규 발전소 건설	-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국방	국제원조 삭감	- NATO 탈퇴 및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미군 주둔 국가 방위비 증액
행정	대통령 권한 확대	- 스케줄 F 행정명령 시행, 예산 제한 권한(Impoundment) 복원
헬스케어	의약품 미국내 생산	-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한 관세 및 수입제한 단계적 도입
	약가 인하	- 의약품 해외수출 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괴리 축소

자료: Trump Agenda47, The Heritage Foundation 'Project 2025',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당선 직후(2016년 11월 ~ 2017년 2월) 미국 업종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채권시장 영향

Fixed Income Strategist 안예하
yhahn@kiwoom.com

단기 상승 압력 있겠으나, 3분기 미 연준 금리 인하 영향력 더 클 것

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는 점은 채권시장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울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한국 시각으로 14 일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 피격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TV 토론회 당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이벤트 또한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키우며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일 요인인 것으로 판단한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 과거 정권 당시 시행했던 정책을 반복하는 가운데, 재정 확장 정책에 따라 미국채 시장이 공급 우위의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6월 말~7월 초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5%에 근접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이전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를 상회했던 배경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인상 우려 등이 작용했었으나,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를 상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부각될 때마다 미국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미 대선 요인보다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가 2%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6월 생산자물가가 다시 반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9월 미 연준 금리 인하 현실화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고용시장 둔화 등은 금리 인하를 확신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 미국채 금리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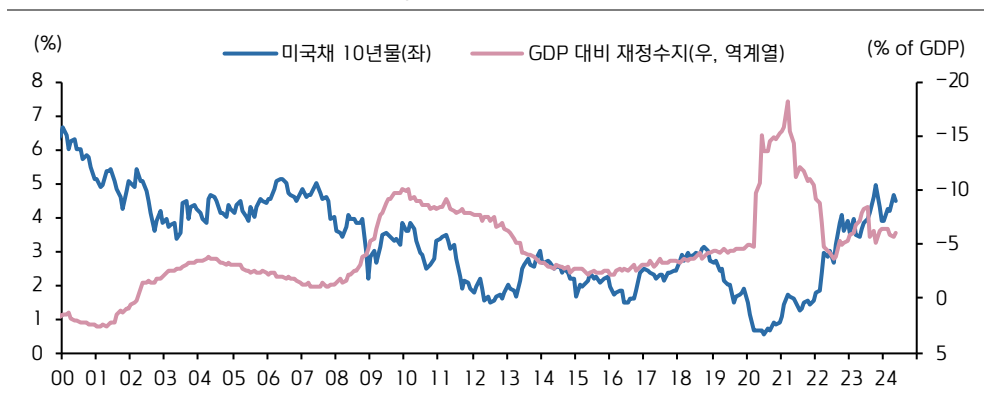
따라서 대선까지는 아직 4개월 가량 남았다는 점과 아직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았으며 그 시점 또한 확신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3분기 초부터 트럼프 당선을 가정한 포지션 구축을 하는 것은 이르다는 판단이다. 인플레이, 고용 지표 둔화 등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금리 인하 현실화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고려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분기 중 4.0~4.3% 레인지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대선 관련 이슈로 변동성이 커지며 미국채 10년물이 4.5%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고민해볼 지점은 과거 ‘트럼프 vs 힐러리’ 국면과 달리 트럼프의 당선 우세 흐름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2016년 미 대선에는 두 후보간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대선 직전까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한편, 2020년과 같이 한 쪽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일찍부터 우세할 경우 미 대선이 치러지는 4 분기가 아닌, 3 분기 중 트럼프 관련 이슈를 모두 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4 분기 대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6월 말 TV 토론회와 최근 피격 사건 등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상황에서, 바이든이 이를 뒤집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면, 3 분기 중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한 하락 속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7월 15일~18일에는 공화당 전당대회, 8월 19~22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등의 이벤트가 있으며, 9월 10일 ABC 방송국 TV 토론회, 9월에는 1차 대통령 토론회가 열린다. 이와 같은 이벤트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못한다면, 최근의 움직임에서도 보았듯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현실화 과정을 확인해야 하기에 미 대선을 둘러싼 정치 이벤트는 금리의 하락 방향성을 바꾸기보다는 하락 속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일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과정을 확인하는 8월 말 잭슨홀 컨퍼런스와 9월 FOMC 등 통화정책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선과 미 연준 인하 요인이 서로 상충되는 과정에서 금리 하락 속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하반기 중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방향성 전망은 유지하나, 최근의 정치 이벤트로 3 분기 중 금리 하락 속도는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미국 GDP 대비 재정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외환시장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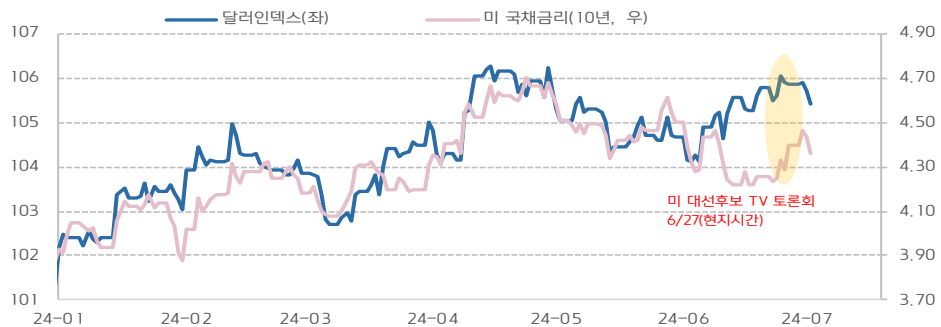
Economist 김유미
hellomy@kiwoom.com

트럼프 피격, 일시적으로 위험회피 심리를 높일 수 있으나

미국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 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현장에서 피격을 당했다. 유세현장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오른쪽 귀 부근에 부상을 입으며 치명상을 피했지만 1 명의 사망자와 2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며 당시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즉각 사살되었으며 유세장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1 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통상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한 테러는 지지층 결집, 지지율 상승 등으로 연결되는 경향으로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환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주 정도를 놓고 본다면 미 공화당 전망 대회가 이번 주 7/15 일에서 18 일에 걸쳐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면서 미 달러화에는 상승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계획과 관세 부과 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시장금리의 상승과 미 달러화의 강세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 월말 미 대선후보 TV 토론회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달러와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 또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초점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갖고 올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에 맞출 경우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높아지며 미 달러화는 안전자산 수요 유입 측면에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미 달러인덱스와 미국 국채금리(10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 달러 복합적인 영향, 3분기 주요 변수 연준, 4분기는 대선

하지만, 미국 대선은 11 월로 약 4 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9 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TV 토론회가 아직 남아있으며 3 분기 중에는 9 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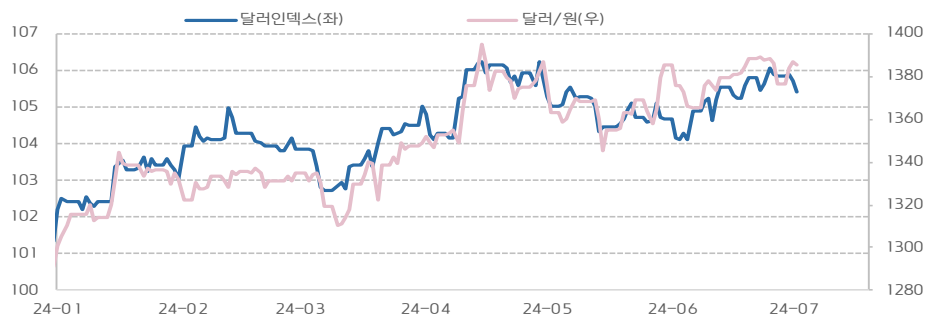
트럼프 피격 사건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상충되면서 달러의 방향성에 복합적인 영향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6 월말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 이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달러의 상승 압력이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물가가 둔화되며 9 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 달러화는 추가 상승이 제약되었고, 소폭의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보다 연준 통화정책 변화에 좀더 미 달러화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미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트럼프 피격 이슈가 3 분기 미 달러의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3 분기 중에는 미국의 물가 둔화 및 실물 지표 둔화에 연준은 9 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 등에 미 달러화는 시장금리와 더불어 완만한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 대선과 트럼프 관련 이슈는 4 분기 대선 영향권으로 진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따른 정치·경제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안전자산 선호 경향을 높일 경우 미 달러화는 추가 하락이 제한되며 소폭의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미 달러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달러/원 환율도 이에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피격 뉴스에 한 주 정도는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 6 월말 7 월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도 높아졌지만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무게를 두며 하락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 분기 중 미 달러화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경우 달러/원 환율도 1,300 원 초중반 레인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4 분기 중에는 미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면서 다시 1,300 원대 중후반대 레인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 달러인덱스와 달러/원 환율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